

[사회]

하인스 워드가 한국인 결혼관 바꿨다

미혼 54% "국제결혼 가능"

"삶의 폭 넓어진다" 긍정적 반응
男-아시아 女-미주·유럽 선호

광주 출신 월간지 기자 감모(여·30)씨는 최근 호주 여행 중 공인 벤치에서 알렌(30)이라는 변호사를 만났다. 감씨와 알렌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한국으로 왔다. 오는 5월엔 알렌의 부모가 한국에 들어와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올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박모(여·23)씨는 광주시에 외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일본인 강사와 사랑에 빠졌다. 보수적인 집안의 장녀인 이씨는 그러나, 몇 년이 걸리더라도 부모님을 설득하겠다는 각오다.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가 한국 미혼남녀의 결혼관을 바꿨다. 국제결혼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혼혈아'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다. 다니엘 헤니·데니스 오 등 미남 혼혈 배우들에 열광하는 젊은 여대생이 늘고 있다. 미혼남녀의 54% 가량이 외국인과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레'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미혼남녀 580명(남·녀 각 290명) 중 절반이 넘는 53.6%가 '사람 나름'(36.5%), '기회가 닿으면 하고 싶다' 등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가급적 피하고 싶다' '절대 불가'도 각각 34%, 12%를 차지했다. 남성은 피부색이 비슷한 아시아계를, 여성은 미주 유럽계의 백인을 선호했다. 남성은 아시아권 선·중진국(68%)·미주, 유럽 국가(21%) 순으로, 여성은 미주·유럽권 선진국(62.1%)·아시아권 선진국(17.2%) 순이었다. 만약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남성은 '순수 외국인'(34.4%)을, 여성은 '한국인 중 외국 영주권자'(26.7%)를 첫 손에 꼽았다.

이들이 생각하는 국제 결혼의 장점은 '삶의 폭이 넓어진다'(28.7%) '배우자에 충실하다'(15.5%) 등이었다. 반면 남녀 모두 '사교방식 차이'(21.6%), '2세(혼혈아) 때문에'(21.9) 국제 결혼을 망설인다고 답했다.

한편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결혼한 31만6천375쌍의 커플 중 13.6%인 4만3천121쌍이 국제 커플이었다. 이는 2004년 3만5천447쌍에 비해 21.6% 상승한 수치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 등록금만 올리고...

교육여건 개선은 뒷전

도시구입·실습비 소폭 인상

대학들이 교육여건 개선을 등록금 인상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 오른 등록금만큼 교육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조선포대와 호남대 등 전국 122개 사립대학의 재정분석과 교육여건 실태를 비교분석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대비 2005년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44~53%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7.9%로 등록금 인상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의 2배에 달했다.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계열은 의화계열로 1997년 536만원에서 2005년 821만원으로 53%였다. 반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7년 33.5명에서 2004년 35명으로 1.5명(4.7%) 늘었다. 광주여대의 경우 23.1명, 조선포대는 1.8명이 늘었고 호남대는 4.2명 줄었다. 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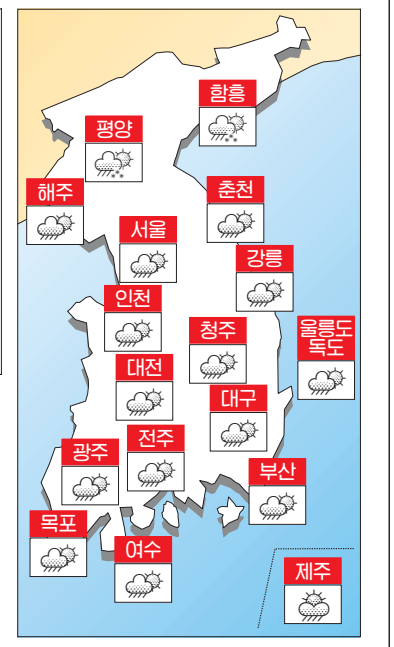
비는 32만6천원에서 26만2천원으로 6만4천원(19.7%) 줄었다. 광주여대와 조선포대는 각각 41.1%와 31.2%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호남대는 13.5%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생 1인당 도시구입비는 8만3천원에서 8만7천원으로 4천원(5.3%) 증가했다. 조선포대는 4.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광주여대와 호남대는 각각 89.4%와 80.8%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7만6천원에서 10만6천원으로 3만원(40.1%) 늘었지만 등록금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사립대학의 자산은 크게 늘어 대학당 누적 이월·적립금은 1997년 148억원에서 2004년 374억원으로 152.2%, 대학당 자산 총액은 1997년 1천277억원에서 2004년 2천277억원으로 121.8% 증가했다. 대학당 이월·적립금과 자산 증가율은 광주여대 249%와 119.4%, 조선포대 40.3%와 79.6%, 호남대 287.1%와 121.2% 등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한차례 비 내린다 4월 13일 (음 3월 16일) <전국날씨>

Table with 3 columns: 지역 (지역), 날씨 (날씨), 기온 (기온). Rows include 서울, 부산, 광주, etc.



서울날씨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3.0m 먼바다=북서~남동풍 파고 1.5~4.0m 남해날씨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먼바다=북서~남동풍 파고 2.0~3.0m 목포 밀물 < 02:03 썰물 < 07:18 14:09 19:28 여수 밀물 < 08:57 썰물 < 02:51 1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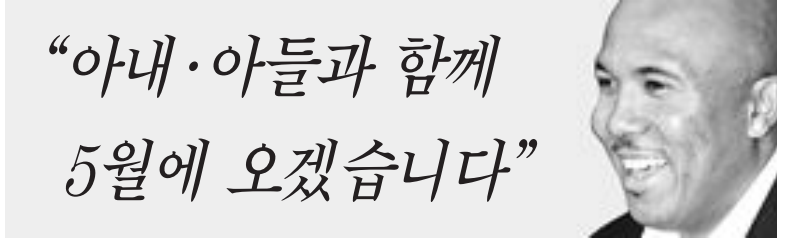
▲해돋이 06:04 ▲해질 19:03 ▲달돋이 18:45 ▲달질 05:39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6 columns: 날짜 (날짜), 날씨 (날씨), 최저/최고 (최저/최고). Rows for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광주·전남 오늘 5~20mm 비

오랜만에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면서 낮 최고기온이 21.6까지 올랐던 12일과는 달리, 13일에는 광주·전남 전역에 비가 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3일 새벽부터 5~20mm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로 전날과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은 12~14도로 12일보다 8~9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 12일 오후 3시를 기해 대흑산도·흑산도 지방에 강풍주의보(평균 풍속 초당 14m)를, 오후 7시를 기해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2일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점차 높아져 바다의 물결이 2~4m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하인스 워드 9박10일 방한 마치고 출국

'어머니와의 약속(Promise to Mother)'을 위해 한국에 온 미국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가 9박10일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12일 오전 10시 대한항공 KE035편으로 출국했다. 워드는 출국 전 "한국을 사랑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I love Korea. I will be back)"라고 말하면서 혼혈재단 설립을 위해 내달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워드는 "혼혈아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미국에서 있을 때는 백인들은 남고 '블랙(Black)'이라고 말하고 흑인들은 '한국인 또는 외국인(Korean or Foreigner)'이라고 하고, 한인들은 나를 '흑인'이라고 불렀다. 한국에 오니 '한국인'이라고 불러 너무 좋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청와대를 방문한 게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너무도 크나큰 영광이었다"며 "5월 말 한국을 다시 방문할 때는 아내와 아들 제이든도 같이 올 생각이다"고 웃었다.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이날 박람회에는 70여 곳의 병역 지정업체와 500여 명의 병역 의무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올 3월 말 현재 458개 지정업체에 1천413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서 수입쌀 하역 저지 격렬 시위

'광주·전남농민연대' 소속 농민 200여명과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대학생 40여명은 12일 수입쌀 하역을 반대하며 여수신항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농민과 학생들은 여수신항 입구로 통하는 철조망과 컨테이너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수입쌀 선적 선박이 정박 중인 제1부두로 들어가려다 물대포를 쏘며 진입을 막는 경찰과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최파이프와 진입봉을 휘두르고 서로 돌을 던지는 등 한때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1시30분께 학생들이 시위를 재개하자 경찰 특공대를 투입, 본격 진압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대학생 3명과 농민 1명을 연행, 조사 중이다. 한편 미국산 수입쌀 1만5천톤을 싣고 여수신항 1부두에 정박한 흥룡선적 '브라이트 스카이'(Bright Sky)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식물검역을 위한 하역작업에 들어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똑똑한 집안 휴대전화 'Ann' 인기

광주·전남 10가구중 1대꼴 집안 휴대전화로 불리는 '안(Ann)' 가입자가 부쩍 늘고 있다. KT 전남본부는 12일 가정용 유선 전화기인 '안 전화기'가 광주·전남지역에서 15만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유선 전화 가입자 140만명의 10.7%로, 10가구 중 한 가구가 사용하는 셈이다. '안' 전화기는 휴대전화의 편리함과 집전화의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문자메시지(SMS)·발신번호 표시 서비스·통화 연결음·벨소리 선택 기능이 있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교육학) featuring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a Career Specialized High School' (현대직업전문학교) listing various vocational courses.

Advertisement for 'Hanbit Gongmwon Hakwon' (한빛공무원학원)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Naeyoung Education' (광주낙내영교육학) with a focus on exam preparation and success stories.

Advertisement for 'Hana Career Specialized High School' (현대직업전문학교) with contact details and course lists.

Advertisement for 'Mudeung High School' (무등고시학원)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